

넷글 응원 풍경 속 제주 성악가 부재

도립예술단 합동오페라 온라인 실시간 공연으로 7대 카메라가 현장 중계 제주만의 공연 콘텐츠에 주·조역 참여 길 넓혀야

로 이의주씨를 초빙했다. 주최 측인 제주도는 당초 온·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온라인 공연만 추진했다. 이를 위해 7대의 카메라 등 실시간 동영상 공연에 맞춘 촬영, 음향, 조명 장비가 별도로 투입됐다.

총 3시간에 걸쳐 안방에 닿은 두 편의 오페라는 출연진들의 표정 연기가 세심히 읽히는 등 무대가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공연 현장에선 노출되지 않는 오케스트라박스 내부 연주 모습 등 카메라가 무대 구성구석을 비췄다. 1회 공연 실황만 해도 12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가 제주아트센터에서 두 차례 비대면으로 공연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다.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전신인 제주시립예술단에서 공연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달리 '팔리아치'는 도립예술단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대였다.

두 작품은 19세기 이탈리아 남부를 배경으로 사랑과 배신, 죽음이 얽혀드는 줄거리 등 공통점이 많다. 이탈리아 현실주의 오페라로 짧은 분량의 두 작품은 종종 한 무대에서 동시에 공연된다. 합동공연 첫발을 떤 작품으로 대중적인 두 오페라를 선택한 도립예술단은 전국 공모 등을 거쳐 주·조역을 선발했고 연출자

목이 보였다.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30분의 '인터미션' 동안 메이킹 영상을 보여주고 공연을 끝낸 출연진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공백을 다 배우지 못했다. 영상 작품은 현장 공연과는 또 다른 완성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영상 리허설 등 제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감염병 사태는 온라인 공연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와 도립예술단도 온라인으로 제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 도립예술단 자체 스타를 키우고 도내 민간 예술단체와 협업 등 상생 기회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번 작품의 경우 랜선을 타고 제주를 넘어 세계 각지 공유될 '제주도립예술단 합동오페라'였지만 주요 배역 어디에도 도립예술단(합창단) 단원이나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는 없었다.



제주도립예술단의 오페라 '팔리아치' 동영상 공연 장면.

산지천 고씨주택 마당에 제주 일노래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4회 걸쳐 토요일 상설공연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 철거 위기를 딛고 살아남은 고씨주택의 마당에 제주 일노래가 퍼진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회장 고영립)는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보존회(보유자 김향옥)와 함께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을 펼친다.

고씨주택은 현재 제주시재생센터가 제주도 위탁을 받아 '제주사랑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씨주택 보존운동을 이끌었던 제주국제문화

교류협회는 제주사람들의 오랜 흔적이 배인 그곳을 배경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제주민요를 전하고 관광객들에게 제주 정체성을 드러내는 무대로 이번 시범공연을 기획했다.

공연은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진행된다. 비가 올 경우 1주일씩 일정이 늦춰진다. 매회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마이크 등 일체의 음향시스템 없이 치러지는 공연으로 소박한 분위기 속에 '밭갈리는 소리', '마당질 소리', '해녀 노젓는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 '영주십경', '너녕너녕'도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이 진행되는 고씨주택 마당.

준비했다. 선착순 15명만 입장 가능하다. 관객은 체온측정과 마스크착용, 손 세척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문의 070-4548-5367. 전선희기자

“제주 축제에 왜 제주 음악인들 없나”

제주음악공동체 '제뮤' 7월 19일엔 창립 파티

제주 음악 환경의 대안을 모색하고 활로를 찾겠다며 제주음악공동체 '제뮤(JEMU)'가 꾸려졌다.

제뮤는 제주에서 수많은 음악행사와 축제가 펼쳐지지만 정작 제주의 음악인과 제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제주 음악은 배제되거나 끼워 맞추기식 소품에 그쳤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만의 음악적 씨앗을 키운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

렵고 어디에도 제주 음악의 위급한 현재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 대안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뮤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제주 음악을 포함한 문화 예술 종사자들은 무반비, 무대책의 상황이고 울타리가 되어야 할 제주의 문화 행정은 오히려 문화예술 예산 삭감을 코로나 시국의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 제주 음악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 ▷ 여러 장르

의 제주 음악인들을 꾸준히 조명하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무대 기획 ▷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 음악환경의 대안을 고민하고 현실에 응용 가능한 방법 모색 ▷ 제주 음악의 씨앗을 키우기 위한 음악교육사업에 대한 고민 등을 펼치겠다고 했다.

제뮤는 첫 행사로 이달 19일 오후 3시 카페소리 야외무대(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72-9)에서 창립 기념 파티를 연다. 입장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이루어진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제주메세나협회 약기 강좌

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회장 김대형)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사내 문화 복지 향상과 기업의 문화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된 2020 회원기업 문화향유 프로그램 '아티스트가 된 CEO'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티스트가 된 CEO'는 분야별 강사와 참여자를 매칭해 1인 1악기 연주교육을 받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트럼펫과 색소폰을 배우고자 하는 제주메세나협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 오후 6시까지. 문의 724-6689.

제주·대전 4·3추모 공연

국악퓨전 단체인 사단법인 너나들이가 제주·대전 문화예술교류 공연 '기억의 봄'을 통해 제주4·3을 말한다. 너나들이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4·3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무용단 '늬'와 함께 꾸민다. 무용단 '늬'는 무용과 음악, 미디어아트의 융합을 통한 실험적 무대를 선도하는 전문예술인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이달 1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공연 장면은 별도 녹화를 거쳐 8월 3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도서예대전 105점 입상

한국서예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박종일)가 전국 공모로 실시한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서예대전 입상 결과가 나왔다. 이번 공모에는 일반부 145점이 출품해 우수상 3점, 특선 23점, 입선 79점 등 105점이 입상했고 학생부는 109점 중에서 107점이 입상작품으로 뽑혔다. 일반부 우수상은 심현섭(예서), 김신(해서), 오가영(현대서예) 씨에게 돌아갔다. 학생부에선 문찬우(중문종 2), 송서연(삼성초 5) 학생이 금상 수상자에 올랐다. 입상작은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흑백사진에 담은 '원도심을 건다'

송동효사진공방 전시 김덕용·김윤정씨 작품

제주시 원도심의 오래된 풍경을 담은 흑백사진이 전시장에 걸렸다. 이도1동 주민센터 둘하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송동효사진공방의 '원도심을 건다'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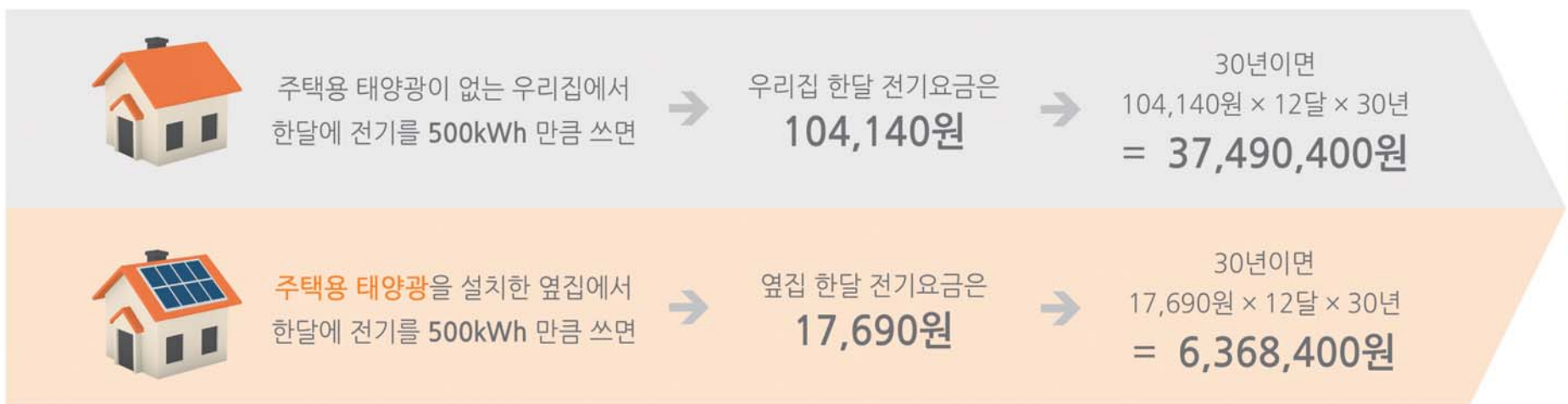
지난 8월 시작돼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송동효 사진가와 촬영 공부부 이어온 김덕용·김윤정 회원이 2018년부터 작업한 제주시 원도심 사진이 나왔다. 낡은 집과 상점, 때론 간판, 돌담과 담벼



김윤정의 '2018 원도심1동'.

락, 햇살 아래 빨래, 사라지는 건물 등 흑백으로 담아낸 사진 속 장면들이 추억을 불러온다. 토·일요일은 휴관. 관람료 무료. '원도심을 건다' 흑백사진전은 둘하나 갤러리에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농로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또 한번 펼쳐진다. 전선희기자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분월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령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